



**HAL**  
open science

Benjamin Ballester

► **To cite this version:**

Benjamin Ballester. Ulsan Petroglyph Museum. The Petroglyph and Sacred Place, 2022, 979-11-975744-4-3. <hal-03834597>

**HAL Id: hal-03834597**

**<https://hal.science/hal-03834597v1>**

Submitted on 30 Oct 2022

HAL is a multi-disciplinary open access archive for the deposit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research documents, whether they are published or not. The documents may come from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France or abroad, or from public or private research centers.

L'archive ouverte pluridisciplinaire HAL, est destinée au dépôt et à la diffusion de documents scientifiques de niveau recherche, publiés ou non, émanant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 français ou étrangers, des laboratoires publics ou privés.

2021년 울산암각화박물관  
국제학술대회 학술총서

# 암각화와 신성한 공간

The Petroglyph  
and Sacred Place



비매품/무료  
9 791197 457443  
93620  
ISBN 979-11-975744-4-3



울산암각화박물관 학술총서 1권  
The Petroglyph and Sacred Place

발간등록번호 57-6310000-000741-01

2021년 울산암각화박물관  
국제학술대회 학술총서

# 암각화와 신성한 공간

The Petroglyph  
and Sacred Place



표지문양 (왼쪽부터)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새끼 엮은 고래, 러시아 신(新) 질라부르가  
4지구 암각화의 스키 타는 사람, 핀란드 아스투반살미 암채화의 무스,  
칠레 엘 메다노 암각화의 라마, 호주 무루주가 암각화의 해양동물 꼬리

2021년 울산암각화박물관  
국제학술대회 학술총서

# 암각화와 신성한 공간

The Petroglyph  
and Sacred Place



2021년 울산암각화박물관 국제학술대회 학술총서

# 암각화와 신성한 공간

The Petroglyph  
and Sacred Place



**총괄** 김경진  
**진행** 윤근영, 박준철  
**교정·교열** 윤근영, 박준철, 박유리, 김시윤

**발행처** 울산암각화박물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반구대안길 254  
전화 052-229-4797 FAX 052-229-4799  
[www.ulsan.go.kr/bangudae](http://www.ulsan.go.kr/bangudae)

**발행일** 2022년 5월 31일

**발간등록번호** 57-6310000-000741-01

**ISBN** 979-11-975744-4-3

## 일러두기

1. 이 책은 2021년 울산암각화박물관 국제학술대회 '암각화와 신성한 공간' (2021년 12월 13일 및 14일 개최)에서 발표된 내용을 모아 펴낸 것이다.
2. 인명·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가능한 한 우리말 발음으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원어를 병기하였다.
3. 이 책에 게재된 사진과 도면 등의 저작권은 명시된 소유자들에게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021 Ulsan Petroglyph Museum  
5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Symposium on Daegok-ri Petroglyphs Discovery

# The Petroglyphs and Sacred Place



## Publication

Ulsan Petroglyph Museum  
254 Bangudae-angil, Dudong-myeon, Ulju-gun, Ulsan  
TEL. +82-52-229-4797  
FAX. +82-52-229-4799  
[www.ulsan.go.kr/bangudae](http://www.ulsan.go.kr/bangudae)

## Publication Date

2022. 5. 31.

## ISBN

979-11-975744-4-3

## Notes to Readers

1. This book is an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specialized in petroglyphs, and contains a revised version of manuscripts from the Ulsan Petroglyph Museum's 2021 International Symposium 'The Petroglyphs and Sacred Place' (held on December 13th and 14th, 2021).
2. Proper nouns including personal names and place names are written as they are pronounced in Korean, and the original words are written in parallel if necessary.
3. The copyrights of photographs and drawings in the journal are owned by specified copyright holders, and reproduction of materials and use for other purposes without permission are prohibited.

## 집필진



### 강봉원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특임교수

### 전호태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벤하민 바에스테르

칠레 프레콜롬비노 예술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 조 맥도널드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 암각화연구센터장

### 안 마그네 예르데

노르웨이 문화유산연구소 연구교수

### 나데즈다 V. 로바노바

러시아 카렐리아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배기동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장,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 임경희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관

### 손호선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장

## CONTRIBUTORS



### **Bong W. Kang**

Professor by special appointment, Department of Cultural Resources Studies, Gyeongju University, S. Korea

### **Ho-tae Jeon**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e, Ulsan University, S. Korea

### **Benjamín Ballester**

Curator in Chief, Museo Chileno de Arte Precolombino, Chile

### **Jo McDonald**

Director, Centre for Rock Art Research + Management,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Australia

### **Jan Magne Gjerde**

Research Professor, NIKU(Norwegian Institute for Cultural Heritage Research), Norway

### **Nadezhda V. Lobanova**

Senior Researcher, Karelian Research Centre, Russia

### **Kidong Bae**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East Asian Archaeology,  
Professor Emeritus of Hanyang University

### **Kyung-hee Lim**

Senior Researcher,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S. Korea

### **Hawsun Sohn**

Director, Fisheries Resources and Environment Research Division,  
South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S. Korea

## 목차



- 011** 반구대 및 천전리 암각화 : 편년 및 생업경제  
강봉원
- 061** 천전리 각석으로 본 신라인의 바위 신앙과 신성 공간  
전호태
- 087**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엘 메다노 바위그림에 담긴 리미널리티,  
순례와 성스러운 장소  
벤하민 바에스테르
- 123** 고래, 고래 사냥꾼, 고래 잔치 : 오스트레일리아 암각화의 관점에서  
조 맥도널드
- 155** 수렵-어로-채집 암각화와 성스러운 장소 : 페노스칸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안 마그네 예르데
- 173** 오네가호 암각화의 신성한 공간  
나테즈다 V. 로바노바

### 대중강연

- 209** 세계유산으로서 반구대 암각화 :  
지정을 위한 전략과 인류의 보편적 유산의 주체로서 자부심  
배기동
- 241** 세계유산이란 무엇인가  
임경희
- 273** 반구대 암각화 고래가 들려주는 이야기  
손호선

# CONTENTS

- 035** The Petroglyphs of Cheonjeon-ri and Bangudae in Korea :  
Focused on Chronologies and Subsistence Patterns  
Bong W. Kang
- 073** Rock Worship and the Sacred Place of Silla Based on Cheonjeon-ri Petroglyphs  
Ho-tae Jeon
- 101** Liminality, Pilgrimages and Sacred Places in El Médano Rock Art from  
the Atacama Desert  
Benjamín Ballester
- 137** Whales, Whalers and Whale Feasts :  
A Matter of Perspective in Australian Rock Art  
Jo McDonald
- 163** Hunter-fisher-gatherer Rock Art and Sacred Space :  
Cases from Fennoscandia  
Jan Magne Gjerde
- 189** Sacred Space of Onega Lake Rock Art  
Nadezhda V. Lobanova

## Public Lectures

- 223** The Bangudae Petroglyphs as World Heritage  
– Esteemed National Treasure and Strategies for Inscription  
Kidong Bae
- 255** What is World Heritage?  
Kyoung-hee Lim
- 281** A Whale Tale Told by the Bangudae Petroglyphs  
Hawsun Sohn

#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엘 메다노 바위그림에 담긴 리미널리티<sup>1)</sup>, 순례와 성스러운 장소

벤하민 바에스테르

칠레 프레스콜롬비노 예술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 목 차

- I. 머리말
- II. 유럽 탐험가들 도착 이전 아타카마 사막 연안의 생활 양상
- III. 엘 메다노 암채화 유적 : 소재, 묘사, 숫자와 그 위치
- IV. 해안을 벗어난 순례와 완전한 사막에서의 리미널리티
- V. 경계에서의 경험을 위한 물리적 수단으로서의 암채화
- VI. 결론 : 리미널리티, 순례와 성스러운 장소

## I. 머리말

엘 메다노(El Médano) 바위그림은 과거 인간과 고래류의 관계를 표현하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각예술 중 하나이다. 이들 암채화(岩彩畵)는 콜럼버스 이전 시대에 아타카마(Atacama) 해안 사막에 인접한 태평양 연안에 살았던 수렵-채집인의 작품으로, 오늘날의 칠레 북부 및 남미 대륙 중서부에서 발견된다. 암채화의 표현과 문양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암채화가 해당 지리적 장소에 그려진 이유는 알려진 바 없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막 깊은 곳에 있는 접근하기 어려운 협곡 등 바다와 사람들의 주거지로부터 수 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다.

1) [역자주] '리미널리티(Liminality)'란 독일 태생의 프랑스 민속학자인 아르놀트 방주네프(Arnold van Gennep, 1873~1957)가 창안한 개념으로, '경계공간', '경계성', '임계성' 등으로도 번역된다. 유명한 저서 『통과의례(Les rites de passage)』에서 그는 소규모 사회, 곧 부족사회와 같은 집단에서 발견되는 경계적 공간을 '리미널리티'라는 용어로 개념화했다. 리미널리티는 개인 혹은 사회 집단의 지위 변화가 이루어지는 의례와 시간의 경과 가운데서 그 지위가 옮겨가는 전이(transition)가 나타나는 공간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류의 일반적인 정착 양상과 관련하여 엘 메다노 암채화의 지리적 위치라는 주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암채화 유적지는 해안가의 정착지에서 원료를 찾아 사막 깊은 곳으로 나서는 순례(pilgrimage)와 다른 이들과의 교역망을 만들기 위한 물질적인 구조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순례의 맥락에서, 엘 메다노 암채화는 해안가에 거주하던 사회가 해당 암채화 유적지를 신성시하게 하는 상징적 효력을 가진다.

## II. 유럽 탐험가들 도착 이전 아타카마 사막 연안의 생활 양상

아타카마 사막 관련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인류는 콜럼버스 탐험 이전 시대에는 태평양 연안뿐만 아니라 내륙의 계곡, 오아시스 및 협곡과 같이 풍부한 자원을 가진 곳을 선호하였다(그림 1). 이처럼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는 지속적인 거주 인구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기간 혹은 간헐적으로만 사람이 살기도 했다(Núñez & Dillehay 1979). 기존 연구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은 이러한 '자원이 풍부한 곳'들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자원이 없는 수십 km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산발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리적·환경적 배경은 서로 떨어진 곳에 정착한 여러 집단 사이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 및 상호 작용 방식의 발전으로 이어졌다(Berenguer 2004; Gallardo et al. 2022; Pimentel 2012).

아타카마 사막 연안은 콜럼버스의 탐험 이전 인구가 상당히 밀집된 지역 중 하나였다. 이 해안선은 경첩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태평양과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결합하기도 분리하기도 하는 자오선으로 약간 기울어진 축(軸)이다. 아타카마 사막에 인접한 해안은 연안 수괴(水塊, water mass)에 질소와 인이 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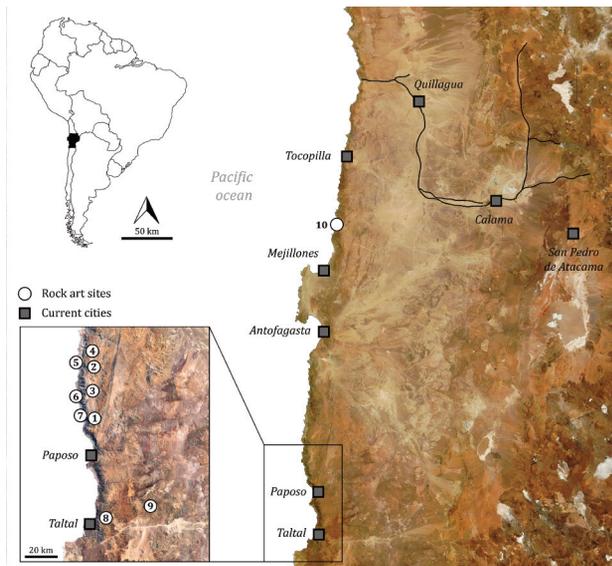


그림 1. 엘 메다노 주요 바위그림 유적의 위치

한 냉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홀볼트 해류와 연안용승(沿岸湧昇, coastal upwelling) 덕분에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풍요롭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해양 환경 중 하나이다(i.e. Alheit & Niquen 2004; Escribano et al, 2002; Mar niét al, 1993; Morales & Lange 2004; Thiel et al, 2007). 그러나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의 환경 조건은 정반대다.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상 가장 건조하고도 기후 변화가 극심한 곳으로, 강수량이 매우 적고 1차 생산력이 매우 부족하며 구역별 편차가 크고 가변적이다(i.e. Clarke 2006; Marquet et al, 1998; McKay et al, 2003; Weischet 1975).

지형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해안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전체 해안축을 따라 위치한 산맥 일부의 거대 절벽으로, 평균 해발 고도는 700m이지만 연안에서 수 km 떨어진 곳의 해발 고점은 2,000m에 이른다(그림 1)(Paskoff 1978/1979; Veloza & Sánchez 1991). 절벽과 바다 사이에는 가장 넓은 부분이 2.5km를 넘지 않는 약간 경사진 평지로 이루어진 3개의 오래된 해안 마식단구(磨蝕段丘, abrasion terraces)가 있다(그림 2). 해안선 동쪽에는 안데스 산기슭까지 뻗어 있는 끝없이 광대한 모래 평원과 완전한 사막으로 구성된 팜파스가 위치하고 있다(그림 3, 4).



그림 2. 안토파가스타의 로아 강 하구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촬영한 아타카마 사막 해안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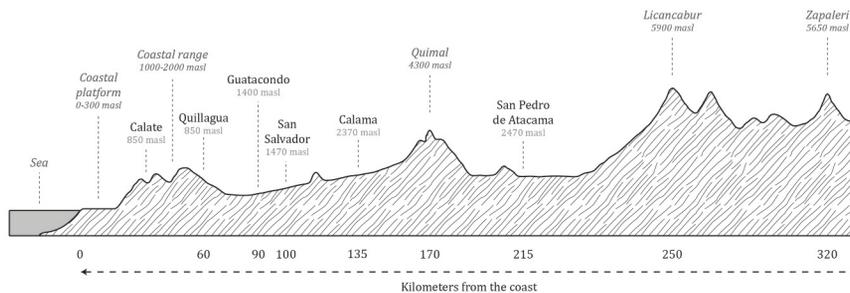


그림 3. 태평양(왼쪽)에서 안데스 산맥(오른쪽)에 이르는 아타카마 사막의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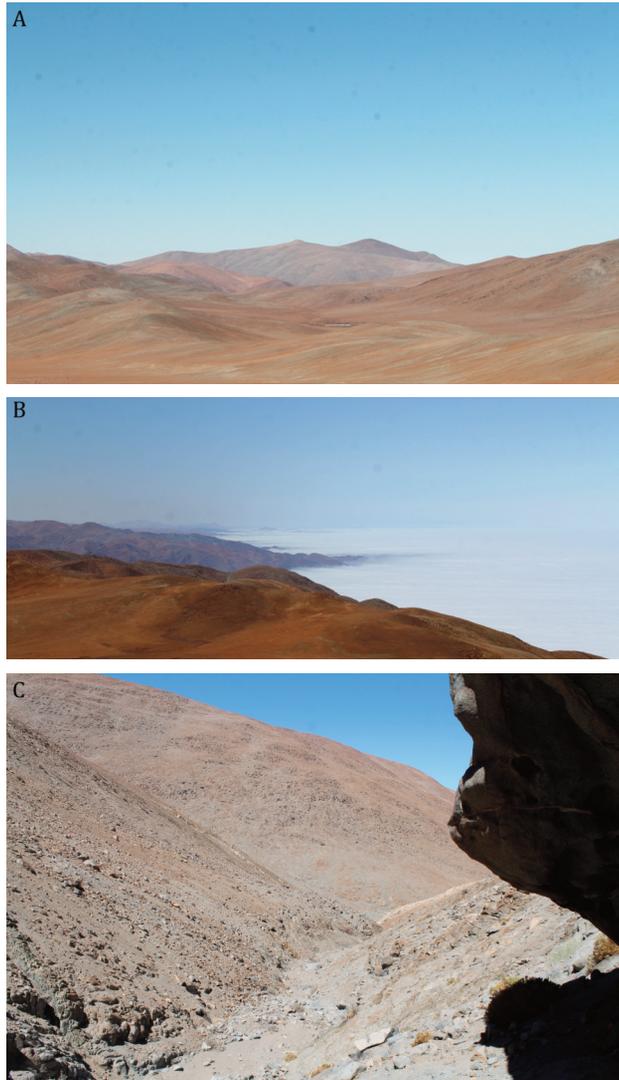


그림 4. 해안 산맥의 다양한 전망을 담은 사진들. (A) 팜파 근처 해안 산맥의 동쪽 부분 (B) 해안 산맥의 봉우리를, 왼쪽의 사막과 오른쪽의 바다를 덮은 안개 (C) 해안 산맥을 가로지르는 이즈쿠냐 계곡의 내부

이 해안의 경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전무하다. 피사과(Pisagua)에 있는 탈리비체 협곡(Quebrada de Tiliviche, 19° 33'S)부터 차나랄 협곡(Quebrada de Chanñaral, 26° 20'S)에 이르기까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 없이 800km 이상의 선형 해안선이 뻗어 있다. 이 해안선 중앙에 위치한 로아 강(Loa River)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유일한 강으로 풍부한 생태계를 이룬다(Gutiérrez et al. 1998; Marquet et al. 1998). 그러나 연안 단구와 해안 산맥에는 수없이 많은 지하수 용수가 여러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절벽과 언덕에 생성된 안개가 여과되어 만들어진 것이다(Bravo 1980; Craig 1982; Herrera & Custodio 2014; Núñez & Varela 1967/1968).

사람들은 주로 해안선에 인접한 샘이 있는 해안 평야와 방풍이 되는 만(灣)에 밀집해 거주했다(그림 2). 이곳의 거주민들은 전 지역을 통틀어 가장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이 있는 바위질의 조간대(潮間帶, intertidal zones)와 바다에 바로 접근할 수 있었다. 해안가에 최초로 정착했을 때(약 12,000년 전)부터 유럽 탐험가들이 도착했을 때(약 1540년)까지 인류 공동체는 이 영역에서 거주지와 마을, 공동묘지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곳에서 가정생활 및 공동체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졌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패총(貝塚)과 생활유구, 매장유구, 그리고 생산유구를 발견했다(i.e. Ballester et al. 2017; Berdichevsky 1965; Bird 1943; Bittmann 1984; Bittmann & Munizaga 1984; Boisset et al. 1969; Borie & Soto 2011; Gallardo et al. 2017a; Mostny 1964; Núñez 1971, 1984; Salazar et al. 2015; Spahni 1967).

그러나 이들의 물질문화를 보면 이들의 생활 영역이 좁고 긴 해안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도자기, 직조물(후기 제외), 재배한 야채와 외래 동물, 특정 목재 및 금속 공예품 등 상당수 물건이 해안가가 아니라 내륙의 계곡과 오아시스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i.e. Ballester & Gallardo 2011, 2017; Carrasco et al. 2017; Correa et al. 2018, 2019; Gallardo et al. 2017b; Labarca et al. 2017; Spahni 1967; Núñez 1985, 1987). 두 번째로, 해안가 주민들이 직접 만든 물건들 중에는 해안 영역이나 해안선 근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원료로 만든 것이 다수 발견되었다. 갈이나 화살촉과 같은 대부분의 석기 공작품은 해안 산맥 동쪽에 있는 사막 내륙이나 해안선에서 20~120 km 떨어진 안데스 산기슭에서 발견되는 특정 암석으로 만들어졌다(그림 3)(i.e. Ballester & Crisóstomo 2017; Blanco 2017; Blanco et al. 2010; Borie et al. 2017; Mostny 1964; Núñez 1984; Peralta et al. 2010; Uhle 1917, 1917).

바다 사냥에 사용한 작살은 위에서 서술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이다(Ballester 2018a, 2020, 2021). 작살의 경우 귀한 원료를 사용해 만든 여러 부품으로 조립되었다. 나무와 덩불에서 목재를, 규소가 풍부한 암석에서 석재를, 야생 낙타에서 뼈를 얻었고, 이외에도 선인장 가시, 목화 섬유, 동물의 힘줄 및 가죽, 광물 안료, 식물 송진, 구리, 해양 포유류의 뼈 등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기술적인 도구의 흥미로운 점은 원재료의 출처가 작살을 궁극적으로 사용하는 바다나 사람들이 살던 해안가 평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재료들은 내륙의 사막에서 얻었거나, 그들의 주거지와 바다에서 동쪽으로 수백 km 떨어진 곳에서 구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기 제작소는 사막의 수십 km 내륙에 위치하고 있었고 교역의 중심지이자 작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i.e. Ballester & Crisóstomo 2017; Blanco 2017; Blanco et al. 2010; Borie et al. 2017; Mostny 1964; Núñez 1984; Peralta et al. 2010; Uhle 1916, 1917). 안료와 금속에 사용되는 구리

광석과 산화철은 동쪽으로 5~30km에 이르는 해안 산맥과 팜파스에서 주로 얻었다(Arce 1997[1930]; Guevara 1925; Mostny 1964; Salazar et al. 2010a, 2010b, 2011, 2013). 반면 목재의 경우 주로 내륙 사막에 있는 나무에서 채취하고 드물게는 해안 산맥의 덤불에서 구하기도 하였다(Grimberg et al. 2022). 동물의 뼈는 해양 포유류의 것은 소수이고 낙타의 것이 다수인데, 낙타는 주로 사막에서 활동하는 육지 동물로 해안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드물었다(Ballester 2020). 가시를 채취하는 선인장은 해안에서 5~20 km 떨어진 해안 산맥 고도 600m에 서식한다. 마지막으로 목화의 경우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해안에는 자라지 않으며, 오히려 북쪽 아리카(Arica)와 남쪽 코피아포(Copiapó), 그리고 내륙과타콘도(Guatacondo)와 타라파카(Tarapacá)의 온대 기후 계곡에 자생한다.

해안 영역과 내륙(해안 산맥과 팜파스)에 위치한 고고학적 유적지의 유형은 상당히 다르다. 해안 영역에는 대규모의 패총과 정식 구조물을 갖춘 주거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유형의 유적은 집단 주거 공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유적이다(Ballester et al. 2017; Bittmann 1984; Bird 1943; Boisset et al. 1969; Larrain 1966; Núñez 1971; Salazar et al. 2015). 매장 유구도 이곳에서 발견되었으며 300개 이상의 무덤이 있는 유구도 있다(Gallardo et al. 2017a; Mostny 1964; Núñez 1971; Spahni 1967). 뿐만 아니라 소규모 패총, 동굴, 사냥터와 도살장, 도로 유구 등 다양한 유형의 유구가 있었다(Berdichewsky 1965; Borie & Soto 2011; Castelleti 2007). 반면 해안가 산맥과 팜파스의 경우 해안 지역에서 발견되었던 것과 같은 집단 주거지나 매장유구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내륙으로 이동하는 경로에는 외떨어진 무덤들과 낙타 사냥터, 석기 제작소, 안료·구리 및 석고 광산, 그리고 소규모 야영지가 있었음이 밝혀졌다(Ballester & Crisóstomo 2017; Blanco et al. 2017; Borie et al. 2017; Cases et al. 2008; Castellón & Ballester 2022; Larrain et al. 2005; Pimentel 2012; Pimentel & Ugarte 2017; Pimentel et al. 2011, 2017; Torres-Rouff et al. 2012).

즉, 사람들은 주거지와 매장지가 있었으며 수렵, 채집, 어로를 통해 풍요로운 식량을 얻을 수 있었던 바닷가에서 일상생활을 했지만, 공예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습득하고 계곡, 협곡, 동쪽 오아시스에 거주하는 다른 집단과 교류하기 위해 내륙 사막을 포함한 더 넓은 지역에 물질적으로 의존했음을 알 수 있다.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모든 집단이 사막 내륙으로 갔던 것은 아니다. 내륙 야영지의 규모가 작으며 특정 작업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정 전문 기술을 보유한 자들만이 이곳으로 향했음을 알 수 있다. 사막에 간다는 것은 자원이 풍부하고 안전이 보장된 일상 공간을 뒤로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건조하며 거친 환경으로 떠남을 의미했다. 그곳은 다른 이들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었고, 있다 하더라도 해안 사람들과는 같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으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험이 상존했다.

### III. 엘 메다노 암채화 유적 : 소재, 묘사, 숫자와 그 위치

엘 메다노 암채화는 콜럼버스 탐험 이전 시대에 아타카마 사막 해안 거주민들이 만든 가장 인상적인 예술 표현 중 하나이다(i.e. Ballester 2018b, 2018c; Ballester & Gallardo 2016; Ballester & Ungemach 2020; Berenguer 2009; Castelleti 2020; Gallardo 2018; Gallardo et al. 2012; Mostny & Niemeyer 1983, 1984; Niemeyer 2010; Núñez & Contreras 2003, 2006, 2008). 이 암채화는 산화철 안료로 붉게 그려낸 것으로 바다와 해양 활동과 관련된 현실적이고 자연적이며 상징적인 그림이다. 네발짐승과 인간 및 기하학적 문양도 간혹 있으나 주로 해양 동물과 배, 작살을 사용한 사냥 장면이 그려졌다(그림 5).



그림 5. 이즈쿠냐와 엘 메다노 유적에서 찍은 암채화 사진(촬영 : 벤하민 바에스테르, 프란시스코 갈라르도)

암채화의 자연스럽고도 사실적인 특성과 일부 작품에서 발견되는 세밀한 기법은 그림의 표현 대상에 대한 심도있고 정확한 해석을 가능케 했다(i.e. Ballester et al. 2018, 2019; Berenguer 2009; Mostny & Niemeyer 1984; Niemeyer 1989; Núñez & Contreras 2008). 동물의 경우, 다양한 기법으로 그려진 돌고래와 고래를 비롯해 참돌고래, 황새치, 상어, 거북, 바다사자, 갑오징어와 낙타 등 다른 종의 동물을 구분할 수 있다. 사냥감과 배의 수, 뗏목당 선원의 수, 작살 줄의 개수, 사냥감의 어떤 신체 부위에 작살이 박혀 있는지 등을 통해 수렵 기술도 파악할 수 있다.

이 암채화의 이름은 처음 발견된 엘 메다노 협곡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협곡은 파포소(Paposo) 마을에서 북쪽으로 22km,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시 남쪽으로 1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그림 1:1). 현재 이 지역에는 해당 유형의 암채화가 12개소 이상 알려져 있다(그림 1) (Ballester 2018c; Ballester et al. 2015; Monroy et al. 2016; Núñez & Contreras 2008). 대부분의 암채화는 파포소 및 탈탈(Taltal) 마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북쪽으로 2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암채화가 발견되면서 다른 지역에 암채화가 없는 이유가 단지 해당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검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훗날 연구 프로젝트와 사막 탐사가 진행되면 해당 지역에서 새로운 암채화 유적이 발견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총 세 가지 유형의 장소에서 암채화가 발견되었다. 바위그늘(岩蔭, rock shelters), 협곡, 그리고 야외 석기 제작소가 그것이다. 이 세 곳은 몇 가지 요소로 구별되는데(표 1), 그 중 하나는 위치이다. 첫 번째 유형인 바위그늘의 경우 해식대나 해안선을 따라 분포해 있고, 두 번째 유형인 협곡에 그려진 암채화의 경우 해안에서 5~13km 떨어진 내륙의 해발고도 600~1,300m 사이의 해안 산맥에 위치하며,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인 석기 제작소 암채화의 경우 해안에서 37km 떨어진 사막의 팜파스에서 단 하나가 발견되었다(Monroy et al. 2016).

이들을 구분하는 또 다른 요소는 각 유적지에서 발견된 암채화의 밀집도이다(표 1). 바위그늘유적 암채화의 경우 보통 그림의 수가 적은 반면(Ballester & San Francisco 2018), 협곡에는 수백 개의 그림이 밀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즈쿠냐(Izcuña) 유적지에는 총 568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Ballester & Ungemach 2020). 반면 팜파스 유적지에 그려진 암채화의 수는 중간 정도이다(Monroy et al. 2016).

마찬가지로 암채화에 표현한 대상 역시 각 유적지 유형별로 상이하다(표 1). 협곡과 팜파스의 암채화는 전체적인 세계관을 도상학적으로 담은 반면, 바위그늘 암채화는 단 한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뗏목에서 사냥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유적지는 각기 다른 내용과 연관된다(표 1). 바위그늘 유적은 식생활과 관련된 저장소와 생활 공간 및 작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도구 제작과 연관되어 있다. 반면 협곡은 가장 규모가 큰 유적지임에

도 불구하고 패총 등 생업 활동에 관련된 유구는 찾아볼 수 없다. 세 번째 유형인 석기 제작소는 규모가 풍부한 암석 재료를 얻기 위한 작업 장소에 해당한다.

유적형태	바위그늘	협곡	개활지
위치	해안 영역	해안 산맥	팜파스
해안과의 거리	0~1km	5~13km	37km
해발고도	0~100m	600~1,300m	1,547m
암채화의 수	+	+++	++
형상	해양 동물	해양 동물, 사냥 장면, 뿔목, 낙타, 인간, 기하문	해양 동물, 사냥 장면, 뿔목, 낙타, 인간, 기하문
내용	거주지 매장물 및 작업 활동	암채화만 발견	석기 제작소 및 작업 활동

표 1. 엘 메다노 암채화 유적 분류와 구분 요소

이와 같이, 암채화 유적의 분포는 마을, 패총, 거주지, 집단 묘역 등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한 곳을 뛰어넘는다. 사실상 정주 시설이나 마을에 있는 암채화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안 영역에 있는 많지 않은 수의 암채화도 바위그늘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암채화는 해안 산맥과 사막의 팜파스를 통합하는 비주거 공간 즉 외부 지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암채화는 다른 생산 활동(석기, 목재, 안료, 물, 동물 사냥 등), 이동 경로, 외떨어진 무덤 및 소규모의 한시적 거주 시설 등 작업 유적지에서 발견되지만 집단 거주 공간이나 집단 묘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 IV. 해안을 벗어난 순례와 완전한 사막에서의 리미널리티

아르놀드 방주네프(Arnold van Gennep; 2013)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각기 다른 사회적 위치의 연속이며, 그 과정은 출생, 사춘기, 성인기, 결혼, 부모,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의 변화, 직업의 전문성 등 한 특정 상황에서 다른 특정 상황으로 전환하는 의식의 연속이다. 이런 지위상의 변화는 지리적으로도 발생한다. 국경과 경계를 넘는 것은 항상 정치적, 법적, 경제적, 상징적, 심지어는 마법적인 질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회적 공간과 연결된 상태에서 다른 사회적 공간과 연결된 상태로 올바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과 의례를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에서 특정 기능을 하며, 자신의 집에 있을 때나 침실에 있을 때의 모습이 결코 직장이나 학술 대회에 있을 때와

같지 않다. 왜냐하면 공간은 사람의 사회적 현실을 구현하기 때문이다(Tilley & Cameron-Daum 2017).

그러나 모든 물리적 이동이 똑같은 통과 의례로 표현되지는 않으며, 그 특성과 횡수는 이동하는 공간의 대조로 결정된다. 순례자는 일상 주거 환경을 떠나 멀고 낯선 공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라 할 수 있다. 사전에 따르면, '순례자'는 무언가를 찾거나 해결하기 위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낯선 곳을 통해 이동하거나 여행, 방향, 방랑하는 사람이다. 횡단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해진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즉, 일상, 습관, 자기 자신, 통제, 알고 있는 것, 익숙한 것, 안전과 안락함에서 벗어나 낯선 것, 외로움, 불안, 익숙하지 않은 것, 이상하고 불안정한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Turner 1974). 따라서 모든 순례자는 두 세계, 두 가지 상태, 두 가지의 상황, 그리고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사회적 공간을 나누는 경계를 넘게 되는 것이다.

순례자는 종교적인 동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순례는 여행이나 일과 같은 세속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심사와 이유가 혼합된 목표를 갖고 시작할 수 있다(Eade & Sallnow 2000; Magry 2008; Reader & Walter 1993). 어떠한 큰 이변 없이도 단순히 이동하거나 이주하는 것으로도 순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사회의 순례 관습으로 인해 관련 장소에 신성한 가치가 부여되어 순례 경로 및 순례 행위,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신성시될 수 있다 (Turner 1974).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순례는 신성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며 성스러운 상황과 관습, 장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순례는 지리적 이동을 구상하고 수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상징성과 상상력이 담긴 통과 의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주네프(2013, p. 45)는 통과 의례를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전 세계와 일상 공간으로부터 분리하려는 목적을 가진 '분리의례(seperation, preliminar)', 상태를 분리하는 경계에서 수행되는 '과도의례(transition, liminal)', 마지막으로 새로운 공간과 사회적 상황으로 통합되는 순간 수행되는 '통합의례(incorporation, postliminal)'가 그것이다.

아타카마 사막의 지리적 특성과 콜럼버스 이전 시대에 인간이 머물렀던 방식을 고려했을 때 해안에서 내륙의 사막으로 이동하는 것은 하나의 순례라고 할 수 있다. 집단의 일부 일원만이, 태어나고 거주하던 곳에서 출발해 그들이 살던 영토의 주변부나 경계로 향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원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든 타 집단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든, 사막 내륙으로의 순례는 주거지, 일상, 내부, 익숙함, 안전, 통제된 상황으로 인식된 사회적 공간에서 벗어나 불안하고,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불안전하며 미지로 인식되는 다른 사회적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막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은 특정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특정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특정 현실에서 다른 현실로 이동하기 위해 경계를 넘어서는 경험이었다.

## V. 경계에서의 경험을 위한 물리적 수단으로서의 암채화

연안에서 내륙 사막으로 순례를 하기 위해서는 해안 산맥을 먼저 지나야 했다(그림 3). 길게 늘어진 산맥은 해안 주민의 영역을 나누는 서쪽 경계선이었으며, 어느 정도 규모의 조직과 지식이 있어야만 넘을 수 있는 지형지물이었다. 지금도 협곡은 높은 봉우리와 가파른 절벽만 피하면 해안 산맥을 횡단하는 가장 자연스럽게고도 간단한 길이다(그림 4).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해안 산맥과 이를 가로지르는 협곡은 해안 영역의 사회적 공간과 팜파스 및 사막의 사회적 공간을 분리하는 경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 곳은 엘 메다노 암채화로 알려진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그림이 밀집된 곳이다(그림 5). 이곳을 눈여겨 보아야 하는 이유는 암채화가 당시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던 해안 영역(마을과 패총이 있는 곳)이나 사람들을 묻었던 곳(매장유구)에는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상 생활과 거주지에서 벗어나 거주 영역 경계에 있는 완전한 사막의 입구에 밀집되어 있다(그림 6). 그런 곳에서 암채화가 밀집된 상태로 발견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암채화의 위치는 우연한 것이 아니며, 암채화의 가치가 표현하는 바와 그 위치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논리에 따라 특정 위치에 그려진 것이다. 암채화는 해양 세계를 그리지만 많은 경우 해양과는 떨어진 곳에 그려졌으며, 해당 암채화를 그린 집단의 영토의 경계에서, 더 중요하게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절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는 곳에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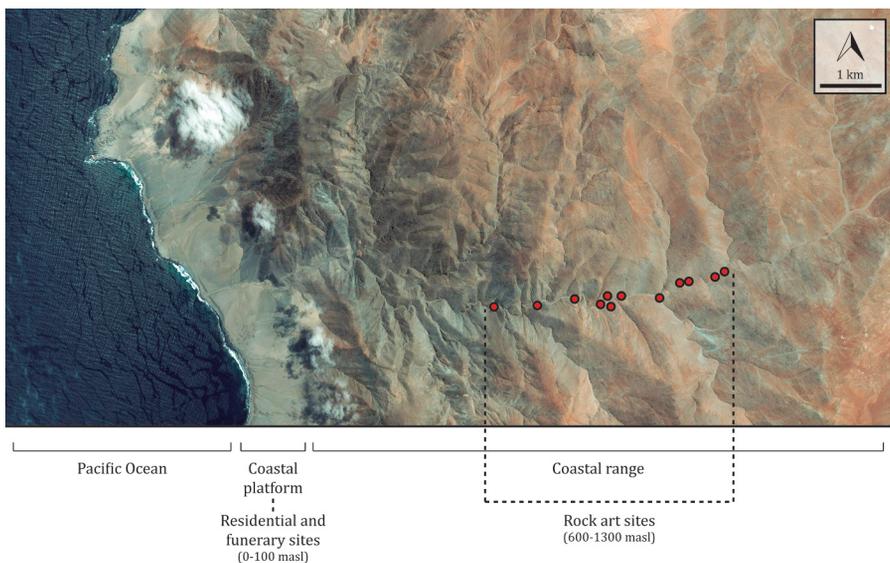


그림 6. 이즈쿠냐 계곡이 위치한 아타카마 사막의 해안선과 해안 산맥의 항공 사진  
(붉은 점은 이즈쿠냐 유적에서 암채화가 집중된 지점에 해당함)

이러한 관점에서 엘 메다노 암채화는 바다에서의 경험을 사막으로 연결시키고, 자신의 고유한 경험을 낮은 곳에 전파하고, 미지의 세계를 익숙한 세계로 전환하는 물리적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엘 메다노 암채화는 바다, 해양생물, 사회적 관습과 같은 일상적 해안 생활을 상징화해 이 모든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사막에 전파시킨 하나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정 장소에 바다와 관련된 그림을 그린 이유는 자신의 존재를 경계에서 드러내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상 생활과 친근한 해양 풍경을 거주지의 최극단, 달리 말하면 자신의 공간과 완전한 사막 사이를 분리하는 물리적 경계에 전파시키고자 하는 행동일지도 모른다.

이런 구체적인 노력으로 경계적 공간은 존재론적 확고함을 얻는다. 이 경우에는 사막 내륙에 위치한 다른 사회적 공간과의 경계인 해안 산맥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해안 산맥 협곡에 그려진 엘 메다노 암채화는 완전한 사막으로 향하는 순례라는 초월적 경험을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인 수단이다. 구체적으로 방주네프(2013)의 분류로 돌아오자면, 엘 메다노 암채화는 경계를 올바르게 통과하기 위한 '경계 통과 의례'로 볼 수 있다. 만약 이 해석이 옳다면, 바닷가 바위그늘의 암채화나 팜파스의 석기 제작소에 있는 암채화가 그려진 개활지 같은 다른 사회적 공간의 암채화 유적 역시 순례와 연관된 물리적 수단일 수 있다. 전자는 방주네프가 정의한 (선행하는 자연으로부터의) '분리의례'에 포함될 수 있으며, 후자는 (목적지에 도달한 상태나 공간에서의) '통합의례'에 포함될 수 있다. 즉 각기 다른 암채화가 있는 세 개의 사회적 공간이 동일한 의식 절차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세 곳의 암채화 모두 순례자가 내륙의 사막으로 이동할 때 사용되었던 의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들 암채화 유적지가 여러 사회적 상태 및 장소 사이의 여정을 안전하고도 상징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엘 메다노 암채화 유적지에 대한 순례는 실질적으로 계속되며 신성한 지위를 부여 받았을 것이다. 암채화와 암채화가 그려진 유적지가 성지가 된 이유는 암채화가 자원을 수급하고 다른 집단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한 상징적 역할 때문이다. 암채화는 경계를 넘는 순례라는 구조 안에서 이를 중재하는 공간이자 교차하는 경계점의 역할을 했고 의식을 위한 수단으로 신성하게 여겨졌다.

## VI. 결론 : 리미널리티, 순례와 성스러운 장소

지금까지 엘 메다노 암채화 연구의 초점은 그림으로 그려진 해양생물과 그들의 습성이었다. 그러나 암채화를 그린 사람들이 정착한 곳의 지리적 위치 탐구는 아타카마 사막의 연안 사회에서 암채화가 하는 역

할을 더 잘 이해하게 할 것이다. 엘 메다노 암채화의 중심 주제와 그 위치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관계에 있으며 상호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으로 그린 대상인 해양 생태계, 해양 동물과 그들의 습성은 그 특징적인 위치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단순한 가설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고찰은 시각 표현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과 통찰력을 제공한다. 엘 메다노 암채화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달리, 이 경우 암채화는 목적지나 도달점이라기보다는 사막으로의 순례와 해안 거주민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사용되었던 중개 도구가자 상징적 수단으로 여겨진다. 예술은 복잡하고도 광대한 의미의 짜임새 안에서 그 사회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사막 순례 경험을 통해 순례자는 귀중하고 특별한, 정확하면서도 특색 있는 지식을 습득했을 것이며, 이 지식은 순례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사이의 지혜를 구분지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경계를 넘는 경험은 상징적, 현상학적 자본 습득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구조와 구분으로 이어진다. 또한 경계를 넘는 의식을 시각화한 예술은 제한된 수의 사람만이 감상할 수 있기에 사회적 구조화를 위한 도구로 쓰인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2004[1967])에 따르면, 엘 메다노 암채화 유적은 ‘유토피아(utopias)’와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s)’라는 두 종류의 공간으로 인식된다.<sup>2)</sup> 유토피아인 이유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꿈꾸던 바다와 희망, 성공과 생산적인 수렵, 채집, 그리고 성취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적이 이와 동시에 헤테로토피아인 것은, 사막에 도달하는 경계 의식에 참여하는 도중 암채화가 협곡의 바위에 표현되었기 때문에 암채화에 그려진 대상이 단순히 꿈이거나 이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암채화 유적은 한편으로는 꿈과 유토피아를 그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암채화를 그린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현실과 물질적 구체성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암채화가 그려진 지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암채화 유적지는 주요 도시와 인구 밀집 지역의 순례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칠레의 다른 지역과 외국 방문객들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미지를 탐구하거나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 매주 방문한다. 엘 메다노 유적은 문화유산을 탐구하기 위한 관광객 순례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콜럼버스 시대 이전의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사회와 사람들은 변화하였으나 엘 메다노 암채화는 다른 유형의 순례라는 틀 내에서 다른 가치와 의미를 담은 성스러운 장소로서의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다.

2) [역자주] ‘헤테로토피아’는 ‘heteros(다른)’과 ‘topos(장소)’를 합쳐 미셸 푸코가 창안한 용어로서, 실제 장소를 갖지 않는 유토피아와는 대비되는 곳을 의미한다. 일종의 현실화된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는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는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장소들의 바깥에 있는 반(反)공간이다.

## References

- Alheit, J. & M. Niquen 2004. Regime shifts in the Humboldt Current ecosystem. *Progress in Oceanography* 60:201–222.
- Arce, I. 1997[1930]. *Narraciones históricas de Antofagasta*. Lama Industriales, Antofagasta.
- Ballester, B. 2018a. Tecnología de arponaje en la costa del desierto de Atacama, norte de Chile. *Estudios Atacameños* 57: 65–95.
- Ballester, B. 2018b. El Médano rock art style: Izcuña paintings and the marine hunter-gatherers of the Atacama Desert. *Antiquity* 92(361): 132–148.
- Ballester, B. 2018c. Rock art, marine hunting and harpoon devices from the Atacama Desert coast, northern Chile. In *Whale on the Rock II*, edited by Sang-mog Lee, pp. 93–115. Ulsan Petroglyph Museum, Ulsan.
- Ballester, B. 2020. Entre mer et désert: techniques, savoir-faire et design d'un type de harpon sur le littoral d'Atacama (nord du Chili). In *Artisanat et savoir-faire: archéologie des techniques*, edited by F. Bouché, L. Bouzaglou, A. Pinto & P. Sauvegeot. *Collectión Archeó.doct*, Éditions de la Sorbonne, Paris.
- Ballester, B. 2021. Arpones precolombinos de Antofagasta. Acople de partes, collage de materiales, ensamblaje de seres y mosaico de paisajes. En *Ensamblajes del pasado. Lugares, objetos y reflexiones*, pp. 99–136, edited by D. Quiroz. Ediciones de la Subdirección de Investigación, Santiago.
- Ballester, B. & Crisóstomo, M. 2017. Percutores líticos de la pampa del desierto de Atacama (norte de Chile): Tecnología, huellas de uso, decoración y talladores. *Chungara, Revista de Antropología Chilena* 49: 175–192.
- Ballester, B. & F. Gallardo 2011. Prehistoric and historic networks on the Atacama Desert coast (northern Chile). *Antiquity* 85: 875–889.
- Ballester, B. & F. Gallardo 2016. Painting a lost world. The red rock art of El Médano. *Current World Archaeology* 77: 36–38.
- Ballester, B. & F. Gallardo 2017. Reflexiones sobre valor e intercambio de objetos en la costa de Atacama. *Taltalia* 10: 53–64.
- San Francisco, A. & B. Ballester 2018. Antiguos aleros al norte de Paposo. *Taltalia* 11: 7–35.
- Ballester, B. & C. Ungemach 2020. Un mar de formas: exploración de la variabilidad estilística del arte rupestre de El Médano desde el sitio de Izcuña, norte de Chile. *Cuadernos de Arte Prehistórico*, NE 1: 189–214.
- Ballester, B., F. Gallardo & P. Aguilera 2015. Representaciones que navegan más allá de sus aguas: una pintura estilo El Médano a más de 250 km de su sitio homónimo. *Boletín de la Sociedad Chilena de Arqueología*, 45 : 81–94.
- Ballester, B., E. Calás, C. Pelegrino, E. Vidal & P. Aguilera 2017. La vida en comunidad de los cazadores-pescadores marinos del desierto de Atacama (4000–2000 cal. a.C.). In *Monumentos funerarios de la costa del desierto de Atacama. Los cazadores recolectores marinos y sus intercambios (500 a.C.–700 d.C.)*, edited by F. Gallardo, B. Ballester y N. Fuenzalida, pp. 183–197. CIIR & SCHA, Santiago.
- Ballester, B., R. Labarca & E. Calás 2018. Relaciones entre tortugas marinas y seres humanos en la costa de Atacama: dos ejemplos arqueológicos. *Boletín del Museo Chileno de Arte Precolombino* 23(2):143–162.
- Ballester, B., J. Gibbons, D. Quiroz & J. Álvarez 2019. Aletas, colas, arpones, líneas, balsas y cazadores: Nuevas pinturas para nuevas miradas sobre el estilo de arte rupestre de El Médano (norte de Chile). In *Actas del XX Congreso Nacional de Arqueología Chilena*, pp. 87–106. Editorial Universidad de Concepción, Concepción.
- Berenguer, J. 2004. Caravanas, interacción y cambio en el desierto de Atacama. *Sirawi Ediciones*, Santiago.

- Berenguer, J. 2009. Las pinturas de El Médano, norte de Chile: 25 años después de Mostny y Niemeyer. *Boletín del Museo Chileno de Arte Precolombino* 14(2): 57–95.
- Berdichewsky, B. 1965. Exploración arqueológica en la costa de la provincia de Antofagasta. *Antropología* 2:3–30.
- Bird, J. 1943. Excavations in northern Chile. *Anthropological Papers of the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38(4): 173–318.
- Bittmann, B. 1984. El Proyecto Cobija: investigaciones antropológicas en la costa del Desierto de Atacama. In *Actas 44° Congreso Internacional de Americanistas, simposio Culturas Atacameñas*, pp. 99–146. Manchester.
- Bittmann, B. & J. Munizaga 1984. Evolución en poblaciones precolombinas de la costa norte de Chile. *Chungara, Revista de Antropología Chilena* 13: 129–142.
- Blanco, J., M. De la Maza, M. & C. Rees 2010. Cazadores–recolectores costeros y el aprovisionamiento de recursos líticos. Perspectivas interpretativas de los eventos de talla en el desierto absoluto. *Werkén* 13: 45–68.
- Blanco, J., I. Correa, C. Flores & G. Pimentel 2017. La extracción prehispánica de recursos minerales en el internodo Quillagua–Costa, desierto de Atacama. *Estudios Atacameños* 56: 77–102.
- Boisset, G., A. Llagostera & E. Salas 1969. Excavaciones arqueológicas en Caleta Abtao. Antofagasta. In *Actas del V Congreso Nacional de Arqueología*, pp. 75–152. DIBAM, La Serena.
- Borie, C. & C. Soto 2011. Prospecciones arqueológicas en la costa norte de Taltal. *Taltalia* 4: 85–101.
- Borie, C., X. Power, S. Parra, H. Salinas, P. Rostan, P. Galarce, I. Peña & F. Traverso 2017. Tras la huella del sílice pampino: Nuevas metodologías para el rastreo de las áreas fuente de aprovisionamiento lítico en Taltal. *Estudios Atacameños* 56: 103–131.
- Bravo, R. 1980. Estudio de la costa de Cobija: el factor geomorfológico y la existencia de agua. In *Cobija: proyecto de investigaciones interdisciplinarias en la costa centro sur andina*, edited by B. Bittmann, pp. 31–47. Universidad del Norte, Antofagasta.
- Carrasco, C., I. Correa, C. Belmar, B. Ballester & F. Gallardo 2017. Cocinando relaciones interculturales: residuos adheridos en vasijas cerámicas de grupos cazadores recolectores marinos del desierto de Atacama (Período Formativo, norte de Chile). *Estudios Atacameños* 55: 85–108.
- Cases, B., C. Rees, G. Pimentel, R. Labarca & D. Leiva 2008. Sugerencias desde un contexto funerario en un “espacio vacío” del desierto de Atacama. *Boletín del Museo Chileno de Arte Precolombino* 13(1): 51–70.
- Castelleti J. 2007. Patrón de asentamiento y uso de recursos a través de la secuencia ocupacional prehispánica en la costa de Taltal. Master dissertation, Universidad Católica del Norte, Antofagasta.
- Castelleti, J. 2020. Whale strandings or hunting and the making of El Médano style paintings in the Atacama desert coast in Chile. *Cuadernos de Arte Prehistórico NE* 1: 215–255.
- Castellón, C. & B. Ballester 2022. Noticias tardías de un antiguo empampado. *Praxis Arqueológica* 3(1): 1–10, in press.
- Clarke, J. 2006. Antiquity of aridity in the Chilean Atacama Desert. *Geomorphology* 73: 101–114.
- Correa, I., C. Carrasco, B. Ballester & F. Gallardo 2018. Efectos colaterales de la transición al Formativo: una nueva culinaria entre los cazadores–recolectores marinos del desierto de Atacama. *Chungara, Revista de Antropología Chilena* 50(1): 87–106.
- Correa, I. F. Gallardo, M. Uribe, E. Echeñique, F. Blanco, S. Flewett, S. Boulanger & M. Clascoc 2019. Pottery from Funerary Mounds along the Arid Atacama Desert Coast, Chile. In *Ceramics of the indigenous cultures of South America. Studies of production and exchange through compositional analysis*, edited by M. Glascock, H. Neff & K. Vaughn, pp. 147–160.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Albuquerque.
- Craig, A. 1982. Ambiente costero del norte de Chile. *Chungara, Revista de Antropología Chilena* 9:4–20.

- Eade, J. & M. Sallnow 2000. *Contesting the sacred. The Anthropology of Christian Pilgrimag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Chicago.
- Escribano, R., V. Marín, P. Hidalgo & G. Olivares 2002. Physical-biological interactions in the pelagic ecosystem of the nearshore zone of the northern Humboldt Current System. In *The oceanography and ecology of the nearshore and bays in Chile*, edited by J. Castilla & J. Lagier, pp. 145–175. Ediciones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Santiago.
- Foucault, M. 2004[1967]. *Des espaces autres*. *Empan* 2(54): 12–19.
- Gallardo, F. 2018. Estilos de arte rupestre e interacción social en el desierto de Atacama (norte de Chile). *Mundo de Antes* 12(1): 13–78.
- Gallardo, F., G. Cabello, G. Pimentel, M. Sepúlveda & L. Cornejo 2012. Flujos de información visual, interacción social y pinturas rupestres en el desierto de Atacama (norte de Chile). *Estudios Atacameños* 43: 35–52.
- Gallardo, F., B. Ballester & N. Fuenzalida 2017a. Monumentos funerarios de la costa del desierto de Atacama. Los cazadores-recolectores marinos y sus intercambios (500 a. C.–700 d. C.). CIIR – SCHA, Santiago.
- Gallardo, F., I. Correa, F. Blanco & G. Pimentel 2017b. Consumption consumes: Circulation, exchange, and value of San Pedro de Atacama black polished ceramics. *Latin American Antiquity* 28(2): 252–268.
- Gallardo, F., E. Vidal, B. Ballester, J. Blanco & G. Pimentel 2022. Desert Travels: Making place through movement in the Atacama Desert (ca. 1000 BC—500 AD).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28(1): 152–177.
- Gennep, A. van 2013. *Los ritos de paso*. Editorial Alianza, Madrid.
- Grimberg, D., M. Figueroa, B. Ballester & V. Varas 2021. Árboles para la caza marina. Aprovechamiento forestal y tecnología de la madera en los arpones del litoral de Antofagasta, norte de Chile. *Chungara, Revista de Antropología Chilena*, in press.
- Guevara, T. 1925. *Historia del Chile, Chile Prehispánico*. Universidad de Chile, Santiago.
- Gutiérrez, J., F. López-Cortés & P. Marquet 1998. Vegetation in an altitudinal gradient along the Río Loa in the Atacama Desert of northern Chile. *Journal of Arid Environments* 40: 383–399.
- Herrera, C. & E. Custodio 2014. Origin of waters from small springs located at the northern coast of Chile, in the vicinity of Antofagasta. *Andean Geology* 41(2): 314–341.
- Labarca, R., E. Calás, F. Gallardo, B. Ballester & A. Prieto 2015. *Chaetophractus vellerosus* Gray 1865 (Xenarthra, Dasypodidae) en un cementerio de túmulos de la desembocadura del río Loa (Región de Antofagasta, Chile): evidencias de conexiones con el altiplano andino, Periodo Formativo Tardío (300 a.C – 500 d.C.). *Estudios Atacameños* 50: 47–58.
- Larraín, H. 1966. Contribución al estudio de una tipología de la cerámica encontrada en conchales de la provincia de Antofagasta. *Anales de la Universidad del Norte* (5): 83–128.
- Larrain, H., E. Sagredo, P. Cereceda, L. Pérez & M. Navarro 2005. Archaeological and geographical evidence of guanaco hunting (*Lama guanicoe* Müller 1776) by marine hunters and gatherers at the fog-oasis of Alto Patache, south of Iquique. In *2nd Southern Deserts Conference: Human – Environment Interactions in Southern Hemisphere Deserts: Past, Present, and Future*. Arica, Chile.
- Magry, P. 2008. *Shrines and pilgrimage in the modern world. New itineraries into the sacred*. Amsterdam University Press, Amsterdam.
- Marín, V., L. Rodríguez, L. Vallejo, J. Fuenteseca & E. Oyarce 1993. Efectos de la surgencia costera sobre la productividad primaria primaveral de la bahía de Mejillones del Sur (Antofagasta, Chile). *Revista Chilena de Historia Natural* 66: 479–491.
- Marquet, P., F. Bozinovic, G. Bradshaw, C. Cornelius, H. González, J. Gutierrez, H. Hajek, J. Lagos, F. López-Cortez, L. Núñez, E. Rosello, C. Santoro, H. Samaniego, V. Standen, J. Torres-Mura & F. Jaksic. 1998. Los ecosistemas del

- desierto de Atacama y área andina adyacente en el norte de Chile. *Revista Chilena de Historia Natural* 71: 593–617.
- McKay, C., E. Friedmann, B. Gómez-Silva, L. Cáceres-Villanueva, D. Andersen & R. Landheim 2003. Temperature and moisture conditions for life in the extreme arid region of the Atacama Desert: four years of observations including the El Niño of 1997–1998. *Astrobiology* 3(2): 393–406.
- Monroy, I., C. Borie, A. Troncoso, X. Power, S. Parra, P. Galarce & M. Pino 2016. Navegantes del desierto. Un nuevo sitio con arte rupestre estilo El Médano en la depresión intermedia de Taltal. *Taltalia* 9: 27–47.
- Morales, C. & C. Lange. 2004. Oceanographic studies in the Humboldt current system off Chile: an introduction. *Deep-Sea Research II*(51): 2345–2348.
- Mostny, G. 1964. *Arqueología de Taltal: epistolario de Augusto Capdeville con Max Uhle y otros*. Fondo Histórico y Bibliográfico José Toribio Medina, Santiago.
- Mostny, G. & H. Niemeyer 1983. *Arte rupestre chileno*. Ministerio de Educación, Departamento de Extensión Cultural, Santiago.
- Mostny, G. & H. Niemeyer 1984. *Arte rupestre en El Médano, II Región*. *Creces* 9(5): 2–5.
- Niemeyer, H. 1989. Los canastos para pescar en Quebrada El Médano. *Museos* 5: 2.
- Niemeyer, H. 2010. *Crónica de un descubrimiento. Las pinturas rupestres de El Médano, Taltal*. Museo Chileno de Arte Precolombino, Santiago.
- Núñez, L. 1971. Secuencia y cambio en los asentamientos humanos de la desembocadura del Río Loa, en el Norte de Chile. *Boletín de la Universidad de Chile* 112: 2–25.
- Núñez, L. 1984. Secuencia de asentamientos prehistóricos del área de Taltal. *Futuro* 8: 28–76.
- Núñez L. 1985. *Tráfico de complementariedad de recursos entre las tierras altas y el Pacífico en el área Centro-Sur Andin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kyo, Tokio.
- Núñez, L. 1987. *Tráfico de metales en el área centro sur Andina: Factos y expectativas*. Cuadernos del Instituto Nacional de Antropología 12: 73–105.
- Núñez L. & T. Dillehay 1979. *Movilidad Giratoria, Armonía Social y Desarrollo en los Andes Meridionales: Patrones de Tráfico e Interacción Económica*. Ensayo. Universidad Católica del Norte, Antofagasta.
- Núñez, L. & J. Varela 1967/1968. *Sobre los recursos de agua y el poblamiento prehispánico de la costa del Norte Grande de Chile*. *Estudios Arqueológicos* 3/4: 7–41.
- Núñez, P. & R. Contreras 2003. *Pinturas prehispánicas de Taltal*. Impresión Ercilla S.R.L., Antofagasta.
- Núñez, P. & R. Contreras 2006. *El arte rupestre de Taltal, norte de Chile*. In *Actas del V Congreso Chileno de Antropología*, pp. 348–357. Colegio de Antropólogos de Chile, San Felipe.
- Núñez, P. & R. Contreras 2008. *El arte rupestre de Taltal, Norte de Chile*. *Taltalia* 1: 77–85.
- Paskoff, R. 1978/1979. *Sobre la evolución geomorfológica del gran acantilado costero del Norte Grande de Chile*. *Norte Grande* 6: 7–22.
- Pimentel G. 2012. *Redes viales prehispánicas en el desierto de Atacama. Viajeros, Movilidad e Intercambio*. PhD dissertation, Universidad Católica del Norte y Universidad de Tarapacá.
- Pimentel G. & M. Ugarte 2017. *La agencia costera en la Pampa del desierto de Atacama*. In *Monumentos funerarios de la costa del desierto de Atacama. Los cazadores-recolectores marinos y sus intercambios (500 A.C.–700 D.C.)*, edited by F. Gallardo, B. Ballester & N. Fuenzalida, pp. 25–38. ICIS & SCHA, Santiago.
- Pimentel, G., C. Rees, P. Souza & L. Arancibia 2011. *Viajeros costeros y caravaneros. Dos estrategias de movilidad en el Período Formativo del Desierto de Atacama, Chile*. In *En Ruta. Arqueología, Historia y Etnografía del Tráfico Sur Andino*, edited by Núñez L. & A. Nielsen, pp. 43–81. Encuentro Grupo Editor, Córdoba.

- Pimentel, G., M. Ugarte, J. Blanco, C. Torres-Rouff & W. Pestle 2017. Calate. De lugar desnudo a laboratorio arqueológico de la movilidad y el tráfico intercultural prehispánico en el desierto de Atacama (ca. 7000 AP–550 AP). *Estudios Atacameños* 56: 23–58.
- Reader, I. & T. Walter 1993. *Pilgrimages in popular culture*. Macmillan, Basingstoke.
- Salazar, D., V. Castro, J. Michelow, H. Salinas, V. Figueroa & B. Mille 2010a. Minería y metalurgia en la costa de la región de Antofagasta, extremo norte de Chile. *Boletín del Museo Chileno de Arte Precolombino* 15: 9–23.
- Salazar, D., V. Figueroa, B. Mille, D. Morata & H. Salinas 2010b. Metalurgia prehispánica en las sociedades costeras del norte de Chile (quebrada Mamilla, Tocopilla). *Estudios Atacameños* 40: 23–42.
- Salazar, D., D. Jackson, J. Guendon, H. Salinas, D. Morata, V. Figueroa, G. Manríquez & V. Castro 2011. Early Evidence (ca. 12.000 B.P.) for Iron Oxide Mining on the Pacific Coast of South America. *Current Anthropology* 52(3): 463–475.
- Salazar, D., H. Salinas, J.L. Guendon, D. Jackson & V. Figueroa 2013. Hunter–Gatherer–Fisher Mining during the Archaic Period y Coastal Northern Chile. In *Mining and quarrying in the ancient Andes*, edited by N. Tripcevich & K. Vaughn, pp. 137–156. Springer, London.
- Salazar, D., V. Figueroa, P. Andrade, H. Salinas, X. Power, S. Rebolledo, S. Parra, H. Orellana & J. Urrea 2015. Cronología y organización económica de las poblaciones arcaicas de la costa de Taltal. *Estudios Atacameños* 50: 7–46.
- Spahni, J. C. 1967. Recherches archéologiques a l’embouchure du Rio Loa (Côte du Pacifique – Chili). *Journal de la Société des Américanistes* 56(1): 181–239.
- Thiel, M., E. Macaya, E. Acuña, W. Arntz, H. Bastias, K. Brokordt, P. Camus, J. Castilla, L. Castro, M. Cortés, C. Dumont, R. Escribano, M. Fernandez, J. Gajardo, C. Gaymer, I. Gomez, A. González, H. González, P. Haye, J. Illanes, J. Iriarte, D. Lancellotti, G. Luna–Jorquera, C. Luxoro, P. Manriquez, V. Marín, P. Muñoz, S. Navarrete, E. Perez, E. Poulin, J. Sellanes, H. Sepúlveda, W. Stotz, F. Tala, A. Thomas, C. Vargas, J. Vasquez & J. Vega. 2007. The Humboldt Current System of Northern and Central Chile: oceanographic processes, ecological interactions and socioeconomic feedback. *Oceanogr. Mar. Biol. Ann. Rev.* 45: 195–344.
- Tilley, C. & K. Cameron–Daum 2017. *An anthropology of landscapes: the extraordinary in the ordinary*. UCL PRes, London.
- Torres-Rouff, C., G. Pimentel & M. Ugarte 2012. ¿Quiénes viajaban? Investigando la muerte de viajeros prehispánicos en el desierto de Atacama (ca. 800 AC–1536 DC). *Estudios Atacameños* 43: 167–186.
- Turner, V. 1974. Pilgrimages as social processes. In *Dramas, fields, and metaphors. Symbolic action in human society*, edited by V. Turner, pp. 166–230.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 Uhle, M. 1916. Sobre la Estación Paleolítica de Taltal. *Revista Chilena de Historia y Geografía* 20(24): 47–66.
- Uhle, M. 1917. Sobre la estación Paleolítica de Taltal. *Publicaciones del Museo de Etnología y Antropología* 1: 31–50.
- Velozo, L. & M. Sánchez. 1991. Características geomorfológicas. Área litoral: Iquique – Caleta Molle. *Norte Grande* 18: 3–8.
- Weischet, W. 1975. Las condiciones climáticas del desierto de Atacama como desierto extremo de la tierra. *Norte Grande* 1(3/4): 363–373.

